

2022 THE 19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제19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제19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THE 19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
RE:PUBLIC LANDSCAPE

주최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주관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회, (주)환경과조경

후원 (재)늘푸른

CONTENTS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 RE:PUBLIC LANDSCAPE

- 4 인사말
- 5 축사
- 7 주제
- 8 심사총평
- 9 운영위원·심사위원
- 10 심사위원 심사평

- 14 수상작 패널

대상

- 18 Coexistence-Aesthetics of Concession-

금상

- 22 The Garbage Collector

은상

- 26 Win-Win Project: Shared Value
- 28 Recover a Lost Village

동상

- 30 Over the Train Depot
- 32 Blue Carbon: Where Carbon Should Go
- 34 Streams as Urban Wetlands

장려상

- 36 Large Plain Park
- 37 Restoration of Urban Ecosystem by
Creating a Habitat Environment for Bees
- 38 Prism: Freeism Gwangju 518 Memorial
Square
- 39 Tidal Pulsing in the Estuary
- 40 Re:Public Design of Park Resharing for
Platform Workers

입선

- 41 Net-Island-Walk
- 42 Green Binder
- 43 Thre- Econnect
- 44 Edge Effect
- 45 Memoryland
- 46 Jangjeom Village Purification
- 47 Gangnam Again
- 48 A Sensory Mart
- 49 10 Ways of Thousands to Enjoy Sublime
of Mudeungsan Mountain Dramatically
- 50 Circulation: Change Purely and As It Was

- 51 수상소감

인사말

가을이 오는 벽두에 전국 학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제19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을 개최합니다. 제19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 개최지인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년보다 개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이 행사는 오랜 전통을 가진 권위 있는 학생 조경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시대적인 화두를 중심으로 전국 관련 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이 창의적인 생각을 펼치는 축제의 장이며, 미래를 이끌 젊은 조경가를 발굴하는 경연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모 주제는 세계조경가대회 주제와 동일하게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Re:Public Landscape'로 선정하였습니다. 번역하면 '조경의 공공성을 재구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조경은 산업 도시의 도시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공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터전은 19세기와 다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양극화, 건강 등의 여러 문제를 조경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당면 과제입니다. 조경이 복잡다기한 이슈에 실천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전문 분야로서 대 사회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은 깊은 고민으로 공모 주제에 관한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공모전 전시를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으로 126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수준 높은 22개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비록 수상은 못 하였지만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그 노고에 위로를 보냅니다. 수상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학생 공모전을 지도해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매년 환경조경대전을 지원해주는 늘푸른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푸른 재단 노연상 이사장님과 임직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공모전은 (사)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설계업협회의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운영위원과 박명권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심사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공모전 전시를 맡아서 수고하신 환경과조경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 8.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장·(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조경진**

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푸른 이사장 노연상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경인들의 성대한 축제인 제19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조경대전을 훌륭하게 준비하신 한국조경학회 조경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조경인이 함께하는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와 함께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이번 행사는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Re:Public Landscape'라는 주제로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 조경인의 노력을 통해 한국에도 조경의 새로운 표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날로 심화하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을 잇는 조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 자연을 되살리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인다면 작게는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공간이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게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늘푸른 재단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내화 단열 제품과 도시 녹화를 위한 인공 토양 파라스를 생산하는 경동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비롯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냉난방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경동나비엔의 후원으로 활동하는 환경부 산하의 비영리재단으로, 환경조경대전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조경학회와는 20여 년간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학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재)늘푸른 이사장 **노연상**

축사

안녕하십니까

아직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삶이 변화하고 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조경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되는 요즘입니다.

올해 19회를 맞는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이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환경조경대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준 재단법인 늘푸른 이사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환경조경대전의 주제는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Re:Public Landscape'입니다. 세계적 팬데믹의 확산과 기술 혁명, 정치적 갈등과 같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다양한 조정 이슈와 조경의 공공 리더십을 강조하는 네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세상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번 환경조경대전은 한국 조경 탄생 50주년이자 3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세계적인 조경 석학과 국내 석학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 환경과 조경 분야 발전을 논의하며, 세계 조경의 최신 흐름과 글로벌 의제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뜨거운 열정이 담긴 작품을 출품해 준 모든 학생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덕분에 환경조경대전이 빛날 수 있었으며,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축하를 드리며,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공들인 작품을 출품한 참가자에게도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공모전 참여를 위해 지도해주신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IFLA 조직위원, 환경과조경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사)한국조경협회 회장 **이홍길**

주제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 RE:PUBLIC LANDSCAPE

세계는 팬데믹 확산, 기술 혁명, 정치적 갈등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2022년 8월, 세계조경가협회FLA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시적 지역 이슈부터 전 지구적 스케일을 포괄하는 조경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광주에 모인다. 제19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주제는 이번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의 주제와 동일하다. 조경의 공공 리더십을 강조하는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Re:Public Landscape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조경이라는 전문 직능과 분과 학문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보고(re:visit), 새로운 담론과 기술을 통해 지구 경관의 재구성을 실험하며(re:shape), 일상의 생활과 환경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되살리며(re:vive), 자연과의 연결을 추구한다(re:connect).

re:visit

- 조경의 발전 과정과 유산에 대한 재평가
- 현대 조경과 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적 리뷰
- 조경 전문 직능의 공공 리더십

re:vive

- 밀레니얼 세대와 창조 계급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일상 미학
- 팬데믹 어바니즘과 건강한 경관

re:shape

- 회복탄력적 조경 설계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경 계획과 설계
- 스마트 도시와 조경

re:connect

- 도시와 자연의 연계
-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성
- 도시 경제의 활성화

심사 총평

올해는 한국조경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세계조경가대회가 1992년 서울, 경주, 무주에서 개최된 지 30년 만에 다시 한국 광주에서 개최되는 뜻깊은 해다. 제19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는 작년에 제출된 122개 작품보다 많은 126개 작품이 출품됐다.

열아홉 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주제는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로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의 주제와 동일하다. 조경의 공공 리더십을 강조하고 조경이라는 전문 직능과 분과 학문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보고(re:visit), 새로운 담론과 기술을 통해 지구 경관의 재구성을 실험하며(re:shape), 일상의 생활과 환경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되살리고(re:vive), 자연과의 연결을 추구한다(re:connect)는 네 가지 이슈에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모 요강에서 언급했듯 첫 번째 주제인 re:visit는 조경의 발전 과정과 유산에 대한 재평가, 현대 조경과 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적 리뷰, 조경 전문 직능의 공공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두 번째 주제인 re:shape는 회복탄력적 조경 설계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경 계획과 설계 그리고 스마트 도시와 조경을 다룬다. 세 번째 주제는 re:vive로 밀레니얼 세대와 창조 계급,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일상 미학, 팬데믹 어바니즘과 건강한 경관 도시재생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re:connect는 도시와 자연의 연계,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성, 그리고 도시 경제의 활성화에 주목한다.

작년과 동일한 심사위원과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기준은 공모 주제와의 정합성, 대상지 분석 및 해석의 충실성, 개념의 창의성, 설계 과정의 논리성, 개념과 결과물의 연관성, 설계 매체의 창의성과 표현의 완성도다. 올해는 특히 세계조경가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고 작품 수준도 향상되어 심사 과정에서 열띤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 마지막 경합에 오른 작품들은 심사위원들의 치열한 자유 토론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는 최근 팬데믹 확산과 기후변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전쟁 등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공공 영역에서 조경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제로 의미가 크다. 조경가들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야기되는 도시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미시적 차원의 지역적 이슈부터 전 지구적 광범위한 스케일의 문제들까지 선도적이고 실천적인 해법들을 제시해 왔다. 이번 공모 주제는 조경가들이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회적 좌표가 '공공성의 회복'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상작 'Coexistence-Aesthetics of Concession'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에서 알파인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가리왕산이 대상지다. 이곳은 올림픽 이후 관광지 개발과 이용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 주민과 훼손된 삼림의 100% 자연 복원과 시설물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 단체 사이에서 격렬한 대립에 직면해있다. 대상작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요 개념으로 삼아, 인간은 자연을 복원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며, 자연은 인간에게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풍경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이 re:connect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작 'The Garbage Collector'는 낙동강 하구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로 가득 찬 거제도 앞바다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해양 쓰레기 자원 순환 과정을 구축하고, 거제 섬의 경관 특성을 부각하는 디자인으로 새로운 생산적 풍경을 창조하는 전략을 세웠다. 은상작 'Win-Win Project: Shared Value'는 태화강변에 방치된 매립지를 생태학적, 문화적, 경제적 요구를 반영해 생태 복합 문화 공원인 '공유 가치 창출 공간'을 조성해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Recover a Lost Village'는 제주 4·3사건 이후 불탄 채 오랫동안 방치된 마을 부지를, 삶의 터전과 마을의 잃어버린 기억의 층을 되살리고 마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곳으로 만드는 전략을 통해, 현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디자인을 제안했다. 동상작 'Over the Train Depot'은 차량 기지로 단절된 구로동 일대를 공원·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시설의 확충을 통해 그 지역의 공공성을 획득하는 전략이 우수했다. 'Blue Carbon: Where Carbon Should Go'는 과거 무분별한 간척 사업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 해남군에 있는 담수호 사내호의 해안선과 조수를 복원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아이디어를 펼쳤다. 'Streams as Urban Wetlands'는 인위적으로 한강물을 끌어 올려 복원된 청계천 상류 삼천동천을 상수원으로 복원한다는 전략을 선보였다.

공모전을 준비하며 학생들은 작품 완성을 위해 오랜 시간 큰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낙선의 고배를 마신 학생들은 결과보다 더 귀한 동료들과 함께했던 과정을 추억으로 남기기를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한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다음 걸음은 가벼워지고 빨라진다. 두렵고 넘어지더라도 한 걸음을 떼는 습관을 갖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조경 설계의 장도에서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학생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022. 8.

심사위원장,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박명권**

운영위원·심사위원

운영위원

위원장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 회장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대표, 한국조경학회 기획부회장

정태열 경북대학교 교수,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장

김도균 순천대학교 교수, 한국조경학회 호남지회장

오화식 사람과나무 대표, 한국조경협회 설계분과부회장

박명권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

박윤주 재단법인 늘푸른 홍보팀

남기준 월간 환경과조경 편집장

심사위원

위원장

박명권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위원

김정윤 오피스박김 대표

김현민 스튜디오공일 엘엔씨 대표

이영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이윤주 LP SCAPE 대표

이호영 HLD 대표

정재윤 JCFO 소장

심사위원 심사평

김정운 오피스박킴 대표

전문 분야로서의 조경이 가진 가장 큰 매력과 힘은 우리가 짓는 공간의 공공성 publicness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 주제이자 제19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주제인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Re:Public Landscape’는 조경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공성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작 ‘Coexistence-Aesthetics of Concession’과 금상작 ‘The Garbage Collector’는 대상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개념을 도출한 뒤 매우 구체적인 공간 설계를 통해 개념을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다른 출품작들을 앞섰다. 두 작품 모두 관습적 조경의 업역에 도전했고(re:visit), 과거의 이용 행태가 가져온 현재 상태를 인식하여(re:vive), 대상지와 그 주변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함으로써(re:shape), 대중과 경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했다(re:connect).

모든 출품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에도 끝까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는 점이다. 출품팀 중 3분의 1 이상이 크고 작은 감점 및 실격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웠다. 지침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성 들여 만든 제출물에 오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어진 시간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작업 일정을 조율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기본이 되는 자세가 아닐까. 불특정 다수의 공공이 쓸 공간에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구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조경가로서의 시간 중 가장 첫 부분에 서 있는 모든 출품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김현민 스튜디오일공일 엘엔씨 대표

올해는 세계조경가협회FLA가 주관하는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뜻깊은 해다. 환경조경대전은 이번 세계조경가대회와 같은 주제인 ‘리:퍼블릭 랜드스

케이프’라는 조경의 거시적 담론을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다루었다. 대상작인 ‘Coexistence-Aesthetics of Concession’은 주제, 과정, 해법, 디자인 완성도, 패널 구성의 측면에서 가장 충실한 작품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거시적인 주제 탓인지 많은 작품이 기성 작품의 이슈와 해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보편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다. 대상작 역시 이 점에서 다소 아쉽다. 공공 리더십으로서의 조경을 생각한다면, 폭넓은 이슈를 바탕으로, 보다 미시적 관점으로 문제를 관찰하고, 다양하고 면밀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협업을 통한 통합적 해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금상작 ‘The Garbage Collector’는 이러한 점에서 창의적인 이슈와 통합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관광 및 상주 이용자와 연계된 공간 프로그램 설정, 공간 배치의 합리성, 디자인 완성도 등 조경 계획적 측면에 미흡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6개의 많은 작품이 제출됐고, 전반적인 작품 수준이 높다는 점은 조경 설계 분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고무적이며 기대를 하게 한다. 수상자 모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각고의 노력을 했을 많은 참가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윤주 LP SCAPE 대표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승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간과 자연은 또 다른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급격한 변화는 조경가들에게 더 복잡하고 큰 능력을 요하고 있다. 조경가가 세상만사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 조경을 통해 인간에게는 치유를, 자연에는 회복을 전하는 연결 다리 역할에 충실하며 리더십을 적극 발휘할 시기인 듯하다.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와 연계된 주제인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에 맞춰 제출된 126개의 작품을 접하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능력으로 대상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경 슈퍼 히

어로를 만날 수 있었다. 대상작 ‘Coexistence-Aesthetics of Concession’은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부지의 사용을 둘러싸고 이해 상충 관계에 놓인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그리고 정부 사이의 타협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기존의 조경은 인간과 자연의 이로운 중 하나를 지향하는 방식인데, 자연과 인간이 동등하게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풍경을 제시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금상작 ‘The Garbage Collector’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를 다뤘다. 고래를 닮은 디자인과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이목을 끌었다. 쓰레기 처리, 업사이클링 체험과 교육, 재료 은행의 자원을 통해 제품 개발과 판매,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 공간 등 순환 구조로 계획한 지상 프로그램은 거제도에 국한된 설계가 아닌, 전 세계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유할 수 있는 실천 모델이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충실히 제시해준 모든 학생의 노력과 열정에 큰 찬사를 보낸다. 수상하지 못한 참가자와 지도교수의 열정과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

이호영 HLD 대표

이번 환경조경대전에는 점차 중요해지는 조경의 역할을 방증하듯 126개의 작품이 제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회 갈등, 기후위기, 기술 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시대에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조경의 공공 리더십을 보여주는 작품이 제출됐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가 상당히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제출작이 다룬 이슈와 대상지는 조경의 모든 분야를 아우를 정도로 다양했다. 하천 생태계, 해양 오염, 습지 파괴, 산림 훼손, 마을 정체성, 단절된 도시 등에 대해 논리적이고 참신한 해결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특히 해양 오염과 같이 아직 조경 실무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

는 영역까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점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단편적인 설계를 넘어 과학적인 분석 과정과 심도 있는 리서치를 바탕으로 도출된 계획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지에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생태, 주민 갈등, 정치 개입, 사회 갈등 등의 이슈가 얽혀 있었는데, 몇몇 작품은 이런 복합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보여주었다. 현재 사회는 더욱 건강한 외부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조경가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지고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많은 학생이 환경조경대전 같은 기회를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환경에 대해 고민해보고, 또 사회에 나와 조경가의 길에 동참하기를 기대해본다.

정재운 JCFO 소장

설계의 모미beauty of design는 정답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설계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정답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기도 한다. 또 어떤 대상지에 대한 계획안이 당선작이 되거나 선택될 수 있지만, 그 순간의 이슈와 요구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고 평가한 것일 뿐 이 해법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통시적으로 두고두고 사랑을 받는 역작들도 있지만, 십 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철거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대체되는 프로젝트가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모든 프로젝트가 영원히 사랑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좀 더 과감하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 있게 설계에 임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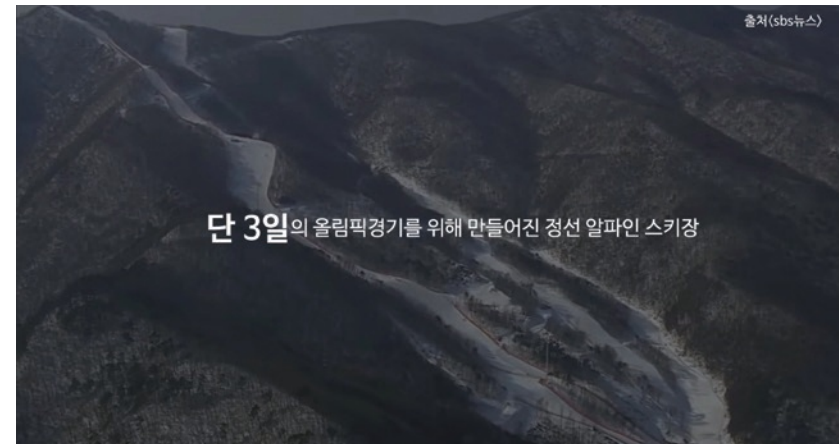
이번 환경조경대전도 수준 높은 작품들의 대잔치였다. 현역 조경가로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다수의 작품이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지면을 할애하고, 그 결과 설계가 다소 빈약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설계 내용이나 결과물과 크게 상관없는 분석 내용을 패널에 담은 작품도 다소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설계와 설계를 도출해가는 과정 간의 균형이 입상작과 비입상작의 명운을 가른 것 같다. 이러한 관

점에서 대상작 'Coexistence-Aesthetics of Concession-'은 대상지와 주제의 연관성, 대상지에 대한 분석, 설계 아이디어, 표현 기법 등 모든 면에서 균형이 더 잡힌 작품이었다.

입상작과 비입상작 사이에 큰 차이가 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았으면 한다. 출품작은 모두 각각의 이유로 아름다웠으며, 출품한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한다. 앞

서 말했듯 설계에는 정답이 없다. 마이클 반 발켄버그Michael Van Valkenburg는 아직도 18년 전 자신이 출품했던 하이라인 설계안이 당선되었어야 했다고 말하지만, 현재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James Corner Field Operations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완공된 하이라인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환경조경대전이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더 많은 훌륭한 조경가들을 앞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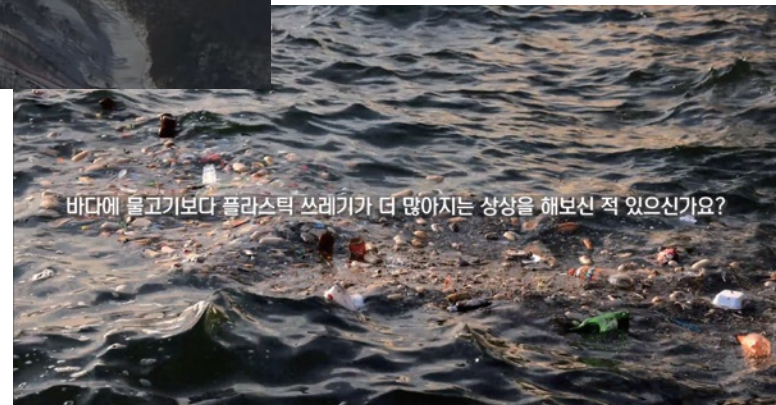
대상 'Coexistence-Aesthetics of Concession-' 동영상



출처 (sbs뉴스)

단 3일의 올림픽경기를 위해 만들어진 정선 알파인 스키장

금상 'The Garbage Collector'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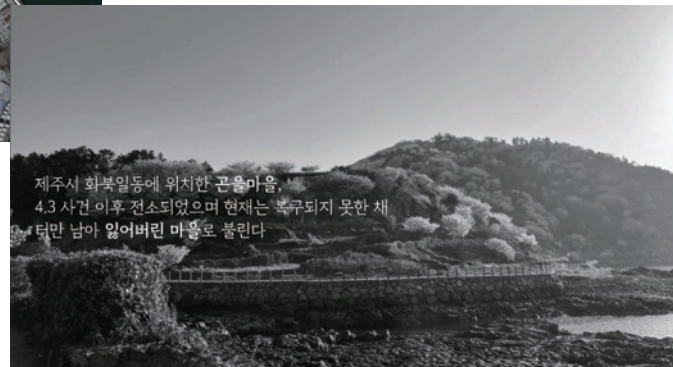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지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상 'Win-Win Project: Shared Value' 동영상



은상 'Recover a Lost Village' 동영상



제주서 화북일동에 위치한 곤을마을,
4.3 사건 이후 전소되었으며 현재는 복구되지 못한 채
텅만 남아 잃어버린 마을로 불린다

2022 THE 19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제19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 RE:PUBLIC LANDSCAPE

대상

Coexistence-Aesthetics of Concession-
김솔지·최지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금상

The Garbage Collector
하민지·이윤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은상

Win-Win Project: Shared Value
박민철·한정무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Recover a Lost Village
문민정·김현수·전유경·태지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동상

Over the Train Depot
백두희·김나래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Blue Carbon: Where Carbon Should Go
정조은·강지원·오성권·위신애·지다희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Streams as Urban Wetlands
전효정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장려상

Large Plain Park
박지원·구본준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Restoration of Urban Ecosystem by Creating a Habitat Environment for Bees
변혜령·김미진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Prism: Freeism Gwangju 518 Memorial Square
김혜수·이동향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Tidal Pulsing in the Estuary
강정욱·문다영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Re:Public Design of Park Resharing for Platform Workers
이다영·김유빈·이은영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입선

Net-Island-Walk
김세영·배일찬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Green Binder
김민지·박수진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Thre- Econnect
이연경·박세건·이효빈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Edge Effect
임한진·유승우·신한주·이세은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Memoryland
정영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Janjeom Village Purification
백준현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Gangnam Again
박병윤·김가빈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양지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김가람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A Sensory Mart
Jin Mei Jing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전공

10 Ways of Thousands to Enjoy Sublime of Mudeungsan Mountain Dramatically
배세령·고은성·최세현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Circulation: Change Purely and As It Was
박지호·문예원 경북대학교 산림과학·조경학부 조경학전공

대상

Coexistence -Aesthetics of Conc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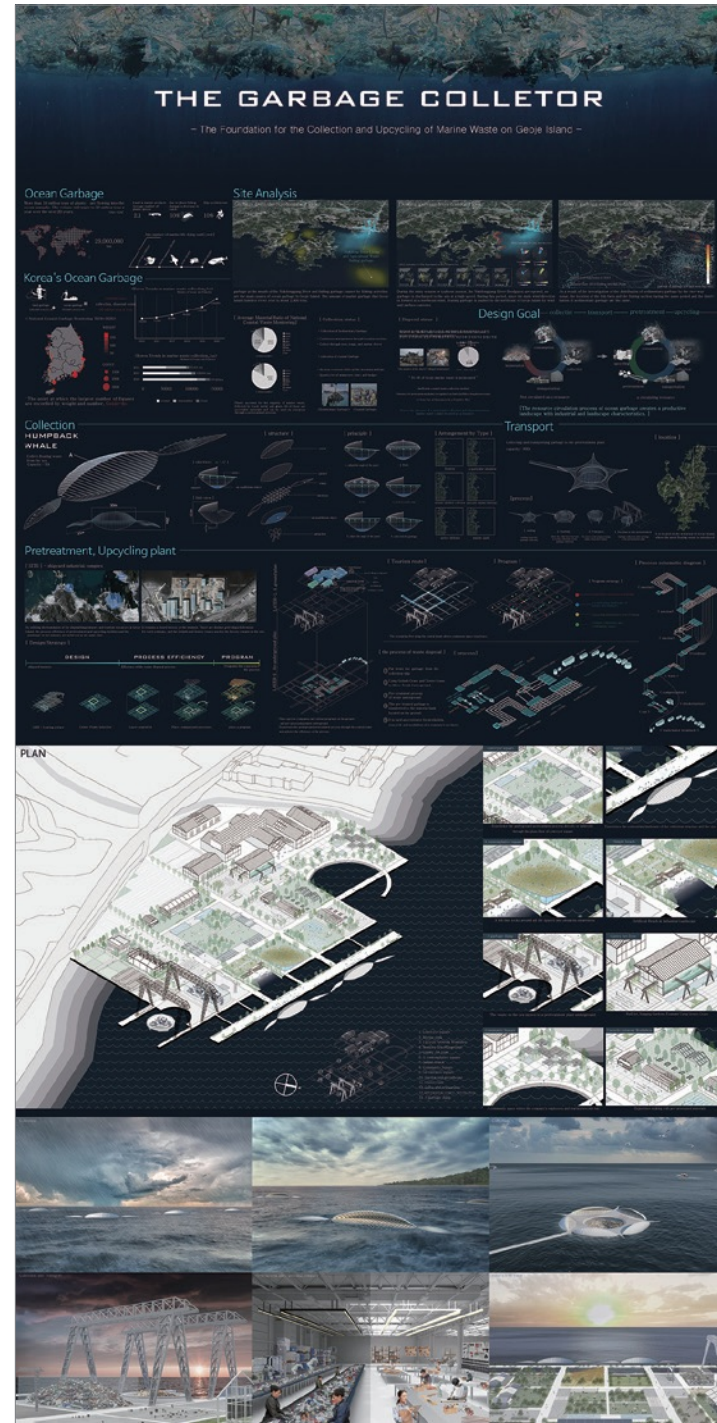
김솔지·최지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금상

The Garbage Coll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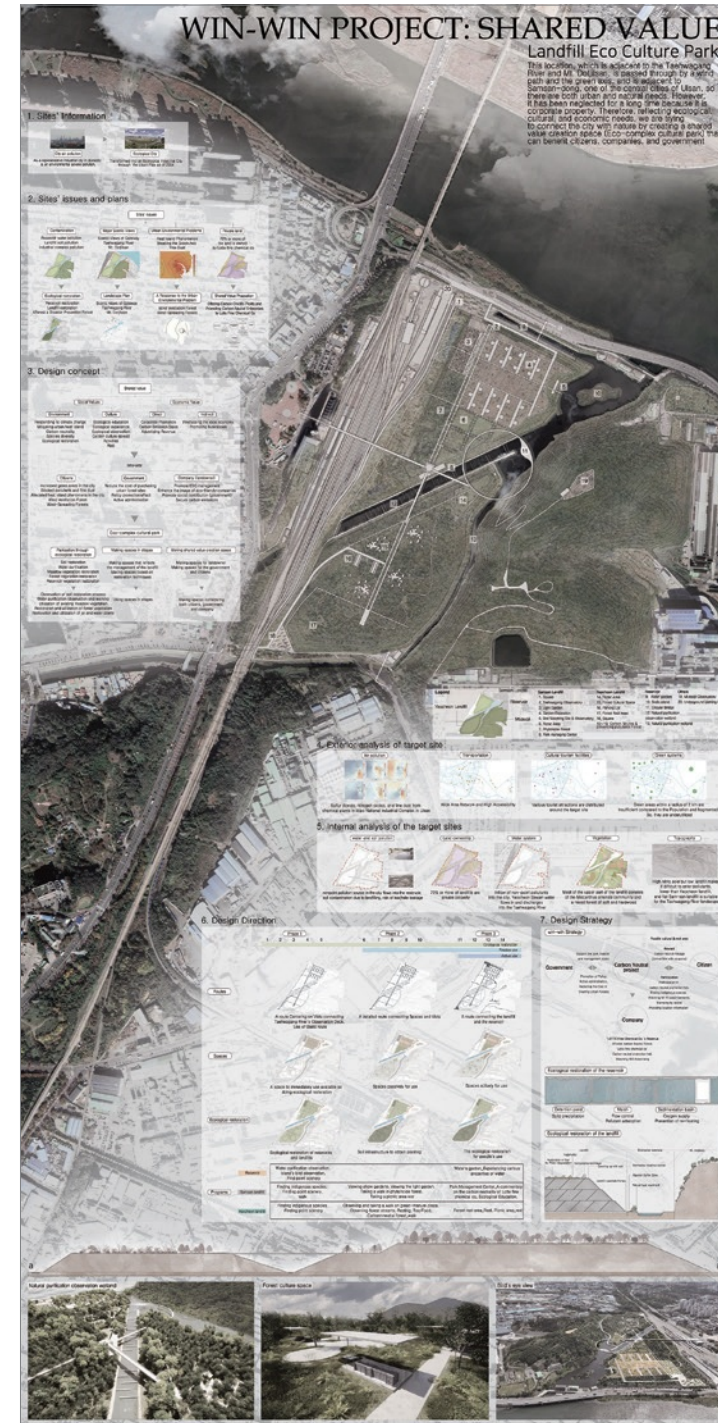
하민지·이윤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은상

Win-Win Project: Shared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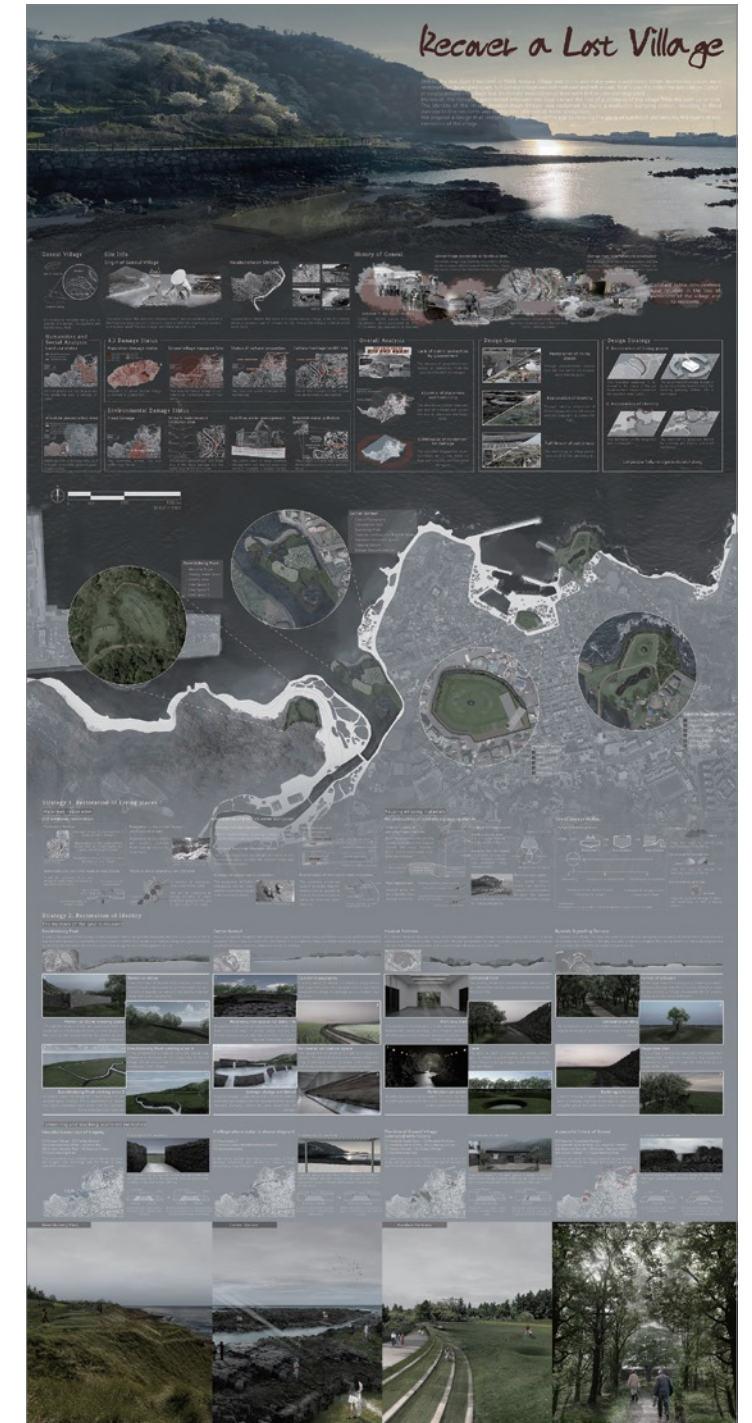
박민철·한정무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은상

Recover a Lost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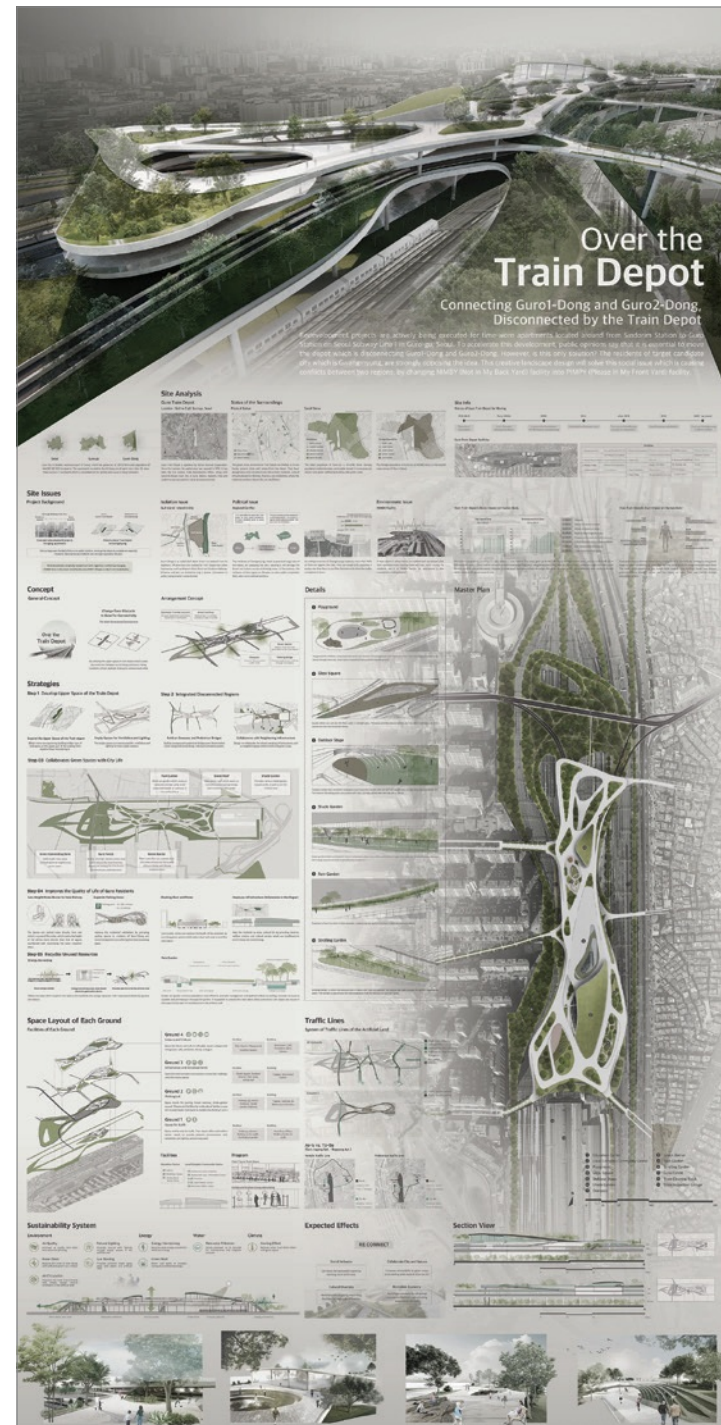
문민정·김현수·전유경·태지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동상

Over the Train De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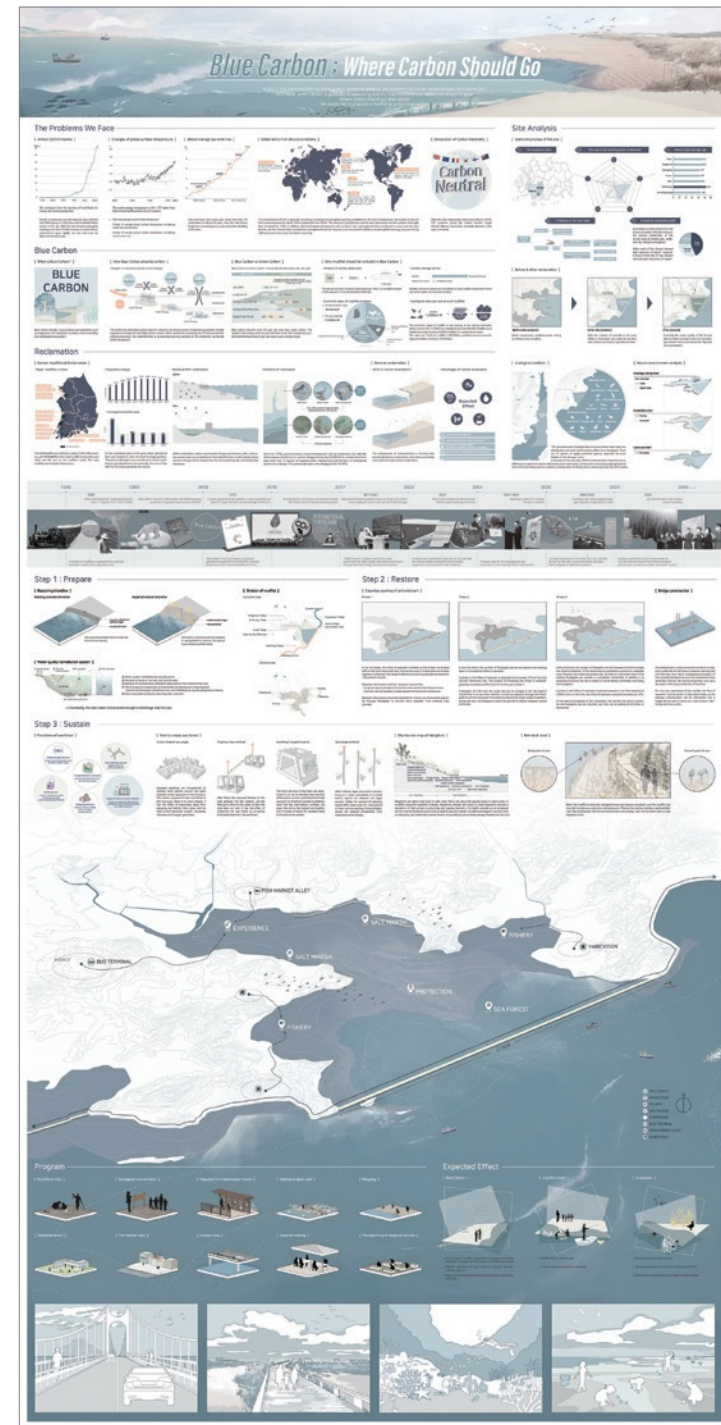
백두희·김나래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동상

Blue Carbon: Where Carbon Should Go

정조은·강지원·오성건·위신애·지다희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동상

Streams as Urban Wetlands

전효정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